

2015학년도 연세대학교 모의논술 문제(인문계열)

※ 아래 제시문 (가), (나), (다), (라)를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제시문 (가)

가장 놀라운 사실은 로마사회가 단 한 순간도 노예제도 자체를 문제 삼거나 유연하게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다. 노예를 결혼시키도록 허락한 일은 바람직하고 훌륭한 일이지만, 이것이 노예에 대한 공포한 처벌, 형편없는 음식, 물질적·도덕적 고통, 횡포까지 바꾸어놓을 수는 없었다. 스토아학파를 비롯한 윤리주의자들도 특별히 더 나은 것은 없었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의 눈에 노예제도는 사회의 산물이 아니라 개인적인 불행이었으며, 인간은 누구나 이러한 불행을 맞이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 불행한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운명의 여신이 부리는 변덕에 이리저리 휩쓸리기 때문이다. 가장 고귀한 사람도 전시(戰時)에는 노예상태로 떨어질 수 있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운명의 여신의 손에 놀아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선한 사람의 의무는 무엇인가? 왕이건 시민이건 또는 노예이건 자기 운명에 따라 타고난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다. 주인의 운명을 타고 났다면 그에 따라 훌륭한 주인 노릇을 해야 진정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로마인들은 언제나 나쁜 주인이나 나쁜 남편보다는 훌륭한 주인이나 훌륭한 남편을 더욱 좋게 평가했다. 철학은 이처럼 특징인이 가진 장점을 현명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의 의무로 제시했다. 그래서 세네카는 제자들에게 노예로 태어난 ‘비천한 친구들’의 훌륭한 주인 노릇을 하라고 가르쳤던 것이다. 만약 그가 노예들에게 직접 가르침을 주었다면 그들에게도 역시 훌륭한 노예로 행동하도록 가르쳤을 것이다. 성 바울과 에픽테토스는 실제로 그렇게 했다.

제시문 (나)

저녁 밥상을 물려 가려는데 남편이 불렀다.

“잠시만 앉으오. 내가 할 이야기가 있소.”

남편은 말 꺼내기가 어려운 듯 잠시 묵묵히 있었다.

“나는 다시 출유(出遊)¹⁾하려 하오. 그러니 당신은 이 집을 정리하고 수레별 큰덕에 몸을 의탁해 있으시오. 이미 사촌 큰형님과 상의해 두었소.”

“집을 판다면……아주 안 돌아오십니까?”

“나도 모르오. 내 뜻이 이곳에 없으니 장담하기 어렵소.”

“그렇다면 차라리 저와 절연하시지요.”

“무슨 해괴망측한 소릴 하오? 우린 혼인한 사이인데, 그걸 어찌 쉽게 깨뜨린단 말이오? 사람에게겐 신의가 중요한 것이오.”

“남자들은 저 편리한 대로 신의니 뭐니 하더군요. 우리가 혼인한 것이 약속이니 지켜야 한다고 합시다. 하지만 어찌 그 약속이 여자 홀로 지켜야 할 것입니까? 당신이 그걸 저버리고 절 돌보지 않으니 제가 약속을 지켜야 할 상대는 어디 있는 겁니까? 전 차라리 팔자를 고쳤으면 합니다.”

“사대부 집 아녀자가 어찌 입에 담지 못할 소리를 하오. 당신이 인륜을 저버리고 예의, 염치도 모르리라곤 생각지 않소.”

“인륜? 예의? 염치? 그게 무엇이지요? 하루 종일 무릎이 시도록 웅크리고 앉아 바느질하는 게 인륜입니까? 남편이야 무슨 짓을 하든 서속(黍粟)²⁾이라도 꾸어다 조식봉양을 하고, 그것도 부족해 술 친구 대접까지 해야 그게 예의라는 말입니까? 하루에도 열두 번도 더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는 게 염치를 아는 겁니까? 아무리 굶주려도 낱 소리 못하고 눈이 짓무르도록 바느질을 하고 그러다 아무 쓸모없는 노파가 되어 죽는 게 인륜이라는 거지요? 난 터무니없는 짓 않겠습니다. 분명 하늘이 사람을 내실 때 행복하게 살며 번성하라고 내셨지, 어찌 누구는 밤낮 서럽게 기다리고 굶주리다 자식도 없이 죽어버리라고 하셨겠는가 말예요.”

1) 다른 곳으로 나가서 뉘

2) 기장과 조

제시문 (다)

공리(utility)의 원리는 우리들의 행복을 증진시키느냐 감소시키느냐에 따라 어떤 행동을 승인하고 거부하는 원리이다. 즉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당사자의 행복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경향에 따라 모든 행위를 승인하거나 부인하는 원리를 의미한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모든 행위란 개인의 온갖 사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 공리는 어떤 것이든 이해관계가 걸린 당사자에게 혜택, 이점, 쾌락, 선, 행복을 가져다주거나 불운, 고통, 악, 불행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주는 속성을 의미한다. 여기서 당사자가 특정 개인인 경우는 그 개인의 행복을 뜻하며, 당사자가 공동체 전체일 경우 행복은 공동체의 행복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공동체의 이익이란 무엇인가? 그 이익이란 공동체를 구성하는 여러 개인들이 얻는 이익의 총합이다. 그렇다면 여러 개인들이 얻는 이익의 총합이란 무엇인가? 어떤 일이 개인의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그것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쾌락의 합계를 증가시키거나 고통의 합계를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어떤 일이 공동체의 이익을 증진시킨다는 것은 그것이 구성원들의 쾌락의 합계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공동체의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한 것은 전체 구성원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나 쾌락의 총합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어떤 행위가 공동체의 행복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그것을 감소시키는 경향보다도 큰 경우, 이는 공리의 원리에 상응한다고 할 수 있다. 어떤 행위에 대한 개인의 승인이 공동체의 행복을 증가시키는 경향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다시 말해 공리의 법칙에 상응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그 개인은 공리의 원리를 좇는다고 할 수 있다. 공리의 원리에 부합하는 행위에 대하여 항상 우리는 그 행위가 해야 할 행위라고, 또는 적어도 하면 안 될 행위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그 행위를 행하는 것이 옳다든가, 적어도 그르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그 행위는 옳은 행위다, 또는 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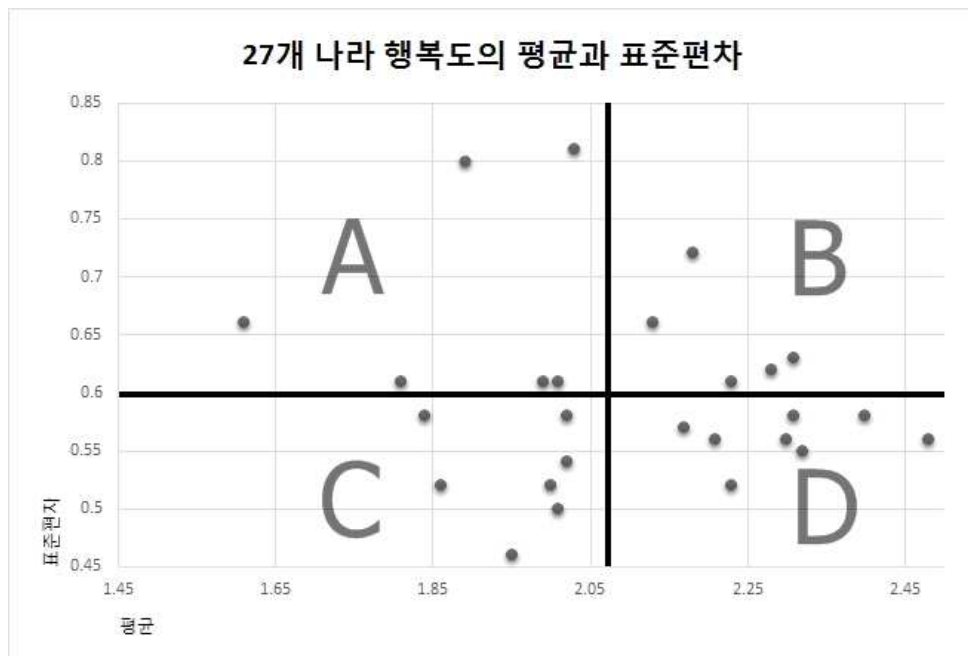
어도 그런 행위는 아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때, ‘해야 할’, ‘옳은’, ‘그런’ 등의 딱지가 붙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 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 말은 무의미한 것이다.

제시문 (라)

아래의 그림은 27개 국가를 대상으로 해당 국가 국민들의 행복도를 조사한 연구결과를 도표로 요약한 것이다. 이 설문조사는 각국 국민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는가를 묻고, 그 응답을 1점(행복하지 않다), 2점(보통이다), 3점(행복하다)으로 측정하였다. 도표에서 X축은 행복도 점수의 산술평균*을 보여주며, Y축은 행복도 점수의 표준편차**를 보여준다. 또한 X축과 Y축은 각각의 산술평균에서 교차하고 있다 (X축의 산술평균은 2.07이며 Y축의 산술평균은 0.6이다).

* ‘산술평균’이란 응답자들이 답한 점수를 모두 합하여 응답자들의 수로 나누어준 값이다.

** ‘표준편차’란 응답자들이 답한 점수가 산술평균 점수와 비교하여 얼마나 다른지를 측정한다. a국가와 b국가의 행복도 점수의 평균은 같은데 a국가의 표준편차가 더 크다면, a국가 국민들의 행복도 정도는 더 넓게 분포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문제 1>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 간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제시문 (가), (나), (다)의 논지를 비교, 분석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

<문제 2> 제시문 (나)와 (다) 각각의 입장을 근거로 삼아, 제시문 (라)의 도표에 나타난 국가군 B와 C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이상적이라고 여겨지는지 답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

1. 출제의도

- 이번 모의논술은 수험생들의 종합적 사고능력을 측정하려는 연세대학교의 다면사고형 논술시험의 취지에 맞게 구성되었으며, 고등학교 교과과정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였다.
- '행복'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역사학, 문학, 철학, 사회학)의 제시문을 비교, 분석하도록 함으로써 수험생의 독해력과 논리적이고도 독창적인 사고력, 표현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행복, 나의 행복과 남의 행복, 그 사이의 연관성과 공존 가능성, 공동체의 행복을 위한 개인의 행복의 희생 여부, 행복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과 가치(관)가 대립하고 갈등하는 상황에서의 해결방안 등에 대한 성찰능력과 분석능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 기본적인 통계자료를 해석하는 능력 및 이를 제시문과 연관 지어 종합적으로 사고하고 창의적으로 추론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최대한 반영해 <사회문화>, <윤리> 등에서 다루는 주제인 행복,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 불평등, 공리주의 등을 통합적인 문제로 구성하였고,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일부 제시문들을 선정했다. 이를 통해 현행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습득한 다양한 주제와 개념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학생이라면 충분히 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제시문 설명

제시문 (가)는 프랑스 역사학자 폴 벤스의 글 "로마제국"(폴 벤스 편, 『사생활의 역사』 1권)의 일부를 발췌, 윤문한 것이다. 여기서 벤스는 고대 로마사회에서 노예제도가 당연하게 여겨졌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이 글에 따르면, 노예제도는 스토아학파 같은 윤리학자들에게도 별로 문제시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스토아학파에게 인간의 행복과 불행이 기본적으로 운명에 의해 정해지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누군가가 노예가 되는 것 같은 근본적인 불행은 그 자신의 의지에 따르는 일이 아니라, 운명에 속해있는 일이다. 이러한 전제 위에 스토아학파는 자기 자리에서 본분에 맞는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도덕적 의무이며, 운명이 어찌지 못하는 개인적인 행복의 바탕이 된다고 보았다.

제시문 (나)는 이남희가 1987년에 발표한 소설 <허생의 처>의 일부이다. 이 작품은 박지원의 한문소설 <허생전>을 패러디한 것으로, 고등학교 『문학1』 교과서에서 뽑았다. 허생을 양반들의 무능을 비판하는 강직하고 진보적인 인물로 그리고 있는 <허생전>과 달리, 이 작품에서는 허생의 처를 1인칭 주인공으로 삼아, 신의와 인륜, 예의, 염치 등 유가적 덕목만을 내세우며 아내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가부장적이며 보수적인 남편 허생과의 갈등을 전면에 드러낸다. 이 제시문에서 허생의 처는 남편과의 결별을 통해 자신의 행복을 막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결심을 보인다. 이것은 온갖 고생과 부조리함도 묵묵히 참고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 여인의 마땅한 도리라는 그 당시 사회적 관념과 윤리규범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주어진 삶에 순응하는 수동적 인물에서 자기 삶의 행복을 찾고자 나아가는 능동적 인물로의 변모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제시문은 허생의 처의 입을 빌어, 다른 사람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개인의 행복은 그것이 인륜이나 도덕의 이름아래 부과될 때조차 부당하며,

개인은 모두 각자의 행복을 추구할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제시문 (다)는 영국 철학자 제레미 벤담의 <도덕과 입법의 원리>의 한 부분을 발췌, 편집하고 운문한 것이다. 이 글은 고등학교 『도덕』 교과서에도 실려 있다. 여기에서 벤담은 공리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한다. 공리의 원리는 이해관계 당사자의 행복을 증가시키는지 여부에 따라 어떤 행위를 승인하거나 부정하는 논리를 가리킨다. 벤담은 이것이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집단적인 차원, 즉 공동체의 수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어떤 행위가 특정한 공동체에 속한 개인들의 이익, 쾌락, 행복의 총합을 증가시킬 때, 이는 공리의 원리에 따르는 것이다. 벤담은 그러한 행위는 옳은 것이거나, 적어도 그릇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공리의 원리를 도덕의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린다. 이는 특정한 행위가 설령 몇몇 개인의 행복을 희생시키더라도 공동체 구성원들 행복의 총합을 증진시킬 수 있다면, 공리에 원리에 부합하는 것이고, 도덕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의미를 띤다.

제시문 (라)는 루트 빈호벤(Ruut Veenhoven)과 그 동료학자들이 1990년 세계 사회학대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1980년경의 세계 각국의 행복도 정도를 수집, 분석한 결과이다. 이 자료는 고등학교 수학교과서에서 다루는 '산술 평균'과 '표준편차'라는 개념을 단순히 수학 개념으로서만이 아니라, 사회적 현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적용 가능한 개념으로 활용한 사례이다.

3. 고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이번 논술의 제시문들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충분히 접해보았거나 다루어보았을 성격의 글들이다. 제시문 (가)에서 언급하는 '로마시대의 노예제도', '스토아학파', '철학자 세네카' 등은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도 나오는 내용이다. 제시문 (나)는 고등학교 『문학 1』 교과서 2장 <문학작품의 내면화>에서 발췌한 것이다. 제시문 (다)는 고등학교 『도덕』 교과서 2장 <사회정의와 윤리>에 일부가 수록되어 있으며, 『윤리와 사상』에서도 다루고 있다. 이 제시문에서 논의하는 '공리주의'는 사회, 역사, 도덕 등의 교과서에서 공통적으로 다루는 개념이다. 제시문 (라)는 고등학교 『미적분과 통계기본』 교과서 5장 <통계>에서 다루는 '산술 평균'과 '표준편차'라는 개념을 이해한 학생이면 풀 수 있는 통계자료이다.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이라면 모든 제시문을 이해하고 문제에 답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4. 문제 해설

<문제1>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 간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제시문 (가), (나), (다)의 논지를 비교, 분석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

[문제분석] 이 문제는 개인의 행복이 타인의 행복과 관계 맺는 방식에 대해 제시문들이 담고 있는 상이한 관점을 파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제시문 (가)는 인간의 근본적인 행복행이 운명에 달린 것이며, 개인은 자신의 자리에서 본분에 충실함으로써 도덕적 의무를 다하고 선을 구현할 수 있다고 보는 스토아철학을 논한다. 제시문 (나)는 인륜을 내세워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려는 남편 허생에 맞서, 자신의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는 도덕률은 거부하겠다는 처의 입장을 보여준다. 제시문 (다)는 개인의 행복에 대한 논의에 '공동체'의 관점을 끌어들이

고, 공동체 전체의 수준에서 행복의 '총합'을 증가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공리주의의 도덕을 드러낸다.

제시문 (가)의 경우, 주제와 관련하여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개인의 행복은 타인의 행복과는 별 관계없이 자신의 정해진 책무를 다하는 데서 오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노예에게는 노예의 행복이 따로 있고, 주인에게는 주인의 행복이 따로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저마다 운명의 여신의 손에 놀아나기 때문이며", 따라서 "주인의 운명을 타고 났다면 그에 따라 훌륭한 주인 노릇을 해야 진정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 해석에 의하면,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고 정해진 역할에 충실히 따르는 것이 행복으로의 길이다. 하지만 제시문 (가)를 단순히 '운명'에 의한 것이 아닌 '사회 제도나 규범'에 의한 행복 불행에 대한 논의로 해석할 수도 있다. 즉, 주인이나 노예로 태어나 서로 다른 행복의 길을 걷는 것은 단순하게 '운명'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로마사회의 노예제도라는 특이한 사회제도에 근거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이러한 해석은 특히 제시문 (나)의 입장과 관련하여 선명한 대조를 보여준다. 제시문 (가)는 주어진 사회제도에 순응하여 각자에게 주어진 소임을 다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입장인 반면, 제시문 (나)는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는 기존의 사회제도를 거스르는 행위가 필요할 수도 있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시문 (나)도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은 제시문 (가)에서 가정하는 개인들 간 행복의 조화로운 공존보다는 적대적인 갈등관계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개인들 사이의 행복도가 불평등하게 차이나는 것은 불합리함을 역설한다. "남자들은 저 편리한 대로 신의니 뭐니" 하지만, 이러한 신의는 그 부인들에게는 "눈이 짓무르도록 바느질을 하고 그러다 아무 쓸모없는 노파가 되어" 죽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다. 개인들의 행복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서로 갈등하고 긴장하는 관계에서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을 수도 있다. 또한 기존의 사회체제에 순응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제시문 (가)의 주장과는 대조적으로, 제시문 (나)는 "하늘이 사람을 내실 때 행복하게 살며 번성하라고" 내셨으며 이러한 행복과 번성을 위해서는 인륜이나 염치를 버리고 "차라리 팔자를 고쳤으면"하는 "해괴망측한 소릴" 하기도 한다

제시문 (다)는 개인들의 행복의 총합이 공동체의 행복이라고 주장함으로써, 공동체적 관점을 명시적으로 도입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의 도입은 양면성을 지닌다. 즉 그것은 개인들의 행복 증가가 공동체의 행복 증가를 가져오기에, 개인들이 타인들과 더불어 적극적으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를 뿜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공동체적 관점은 전체 구성원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나 쾌락의 총량을 극대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주장함으로써, 개인의 행복이 다수의 타인들의 행복을 위해 유보될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 예컨대, 제시문 (나)의 주인공 여성이 겪는 고통이 다른 가족 구성원들 전체의 행복을 증진시킨다면, 제시문 (다)에서 제시하는 공리의 원리에 따라 합리화될 수도 있는 것이다.

<문제1>은 이처럼 행복 추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개인과 타자의 복잡한 관계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며, 그러한 성찰을 상이한 입장의 제시문들에 대한 논리적인 비교, 분석 속에서 드러내기를 기대한다.

<문제2> 제시문 (나)와 (다) 각각의 입장을 근거로 삼아, 제시문 (라)의 도표에 나타난 국가군 B와 C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이상적이라고 여겨지는지 답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

[문제분석] 제시문 (라)의 도표는 각 국가별 행복도의 산술평균값, 그리고 행복도가 얼마나 불평등하게 분포되어있는지를 알려주는 표준편차를 보여준다. 도표상의 A는 행복도의 평균점수는 다른 국가군들보다 낮으면서 한 국가 안에서의 불평등 정도(표준편차)는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군이다. 따라서 제시문 (가), (나), (다) 어느 주장에 바탕을 두더라도 가장 이상적이지 않은 국가군에 속한다. 한편 D는 행복도의 평균 점수는 다른 국가군들보다 높으면서 한 국가 안에서의 불평등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군이다. 제시문 (가), (나), (다) 어느 주장에 바탕을 두더라도 가장 이상적인 국가군에 해당한다.

그런데 국가군 B와 C는 입장에 따라 이상적인 정도가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B군의 국가들은 행복도는 평균보다 높지만 표준편차 역시 높은 반면, C군의 국가들은 행복도는 평균보다 낮지만 표준편차는 상대적으로 작다. 각자의 행복이 서로 갈등관계에 있을 수 있으며, 특히 그러한 상황에서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사회규범에 거스를 수도 있음을 주장하는 제시문 (나)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행복도의 불평등 정도가 높은 국가군 B보다는 국가군 C를 더 이상적으로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공동체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한 것은 전체 구성원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나 쾌락의 총합을 최대화하는 것"임을 주장하는 제시문 (다)의 입장에서는 전체 행복도의 합이 더 큰 국가군 B가 국가군 C보다 더 이상적으로 평가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제시문 (다)의 주장이 제시문 (나)에서 비판하는 불평등 자체를 자동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제시문 (다)는 소수의 희생을 바탕으로 다수의 행복이 보장되는 사회를 이상적인 사회로 직접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그럼에도 "공리의 원리에 부합하는 행위에 대하여 항상 우리는 그 행위가 해야 할 행위라고" 말할 수는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만약 강제적인 불평등 없이 공리의 원리에 부합하는 행위들에 따라 개인들의 행복이 추구되었다면, 제시문 (다)의 입장에서는 국가군 B가 국가군 C보다 더 이상적이라고 판단할 것이다.

1. 답안의 전체적 경향 및 평가

문제 1은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각 제시문의 논지를 비교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제시문들이 비교적 평이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별로 어렵지 않게 내용을 이해하였다. 반면, 제시문 각각의 내용에 담겨있는 뉘앙스와 함의들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비교, 분석하는 데에는 학생들 간 수준 차이가 있었다. 특히 제시문 (나)의 소설 지문과 제시문 (다)의 철학 지문의 경우, 내용을 평면적으로만 이해하고 논점을 포착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적절한 대비점과 논의점 들을 찾아내지 못한 답안이 많았다. 또한 제시문들의 논점을 적극적으로 비교하고 대조하기보다, 단순히 세 제시문의 주제를 요약하고 병렬적으로 나열하는 답안들도 적지 않았다.

문제 2는 제시문 (나)와 (다) 각각의 입장을 근거로 해서 제시문 (라)의 도표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 유형의 경우, 각 제시문의 주제를 정확히 간파하지 못하면 적절한 답변을 제시하는 일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제시문들을 이용해 도표를 성급히 해석하려 들기 이전에, 제시문들의 핵심 논지를 제대로 정리하는 데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문제 2가 요구하는 것은 개인들의 행복도가 불평등한 상황을 (나)와 (다)의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이해하고, 그 내용과 표준편차 개념을 이용해 실제 조사 자료를 평가하는 것이다. 그런데 질문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나)와 (다)를 한데 묶어서 (라)를 해석하는 답안들이 있었다. 또한 많은 답안들이 평가 결과를 단순히 제시하는 데 그쳤을 뿐, 제시문이나 통계의 세밀한 독해를 바탕으로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를 시도한 경우는 아쉽게도 매우 드물었다.

답안의 평가에서는 답안 사례를 각 문제당 두 편씩 선정하고, 평가에서 무엇이 장점으로 여겨지고 어떤 것들은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균형 있게 보여주고자 하였다. 하나 지적해줄 것은 체계적인 구성이나 적절한 표현, 정확한 문법과 맞춤법에 신경을 쓰지 않은 답안들이 적잖게 있었다는 점이다. 제시문의 내용을 자신의 말로 정리해 표현하지 못하고, 제시문의 문장들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도 있었다. 문제를 정확히 이해, 분석하고 자신의 논지를 갖추는 것이 중요한 만큼이나, 그러한 논지를 효과적이고 설득력 있게 제시할 줄 아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2. 문제1번 답안사례 및 평가

[답안사례 1]

제시문 (가)에서의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 간의 관계는 '운명'이다. 운명이란 것은 초자연적인 존재에 의하여 한 인간의 삶에 규정된 순리이다. 이 운명이 개인들에게 주어졌을 때는 서로의 관계와 상관없이 신의 뜻으로만 결정된 결과이다. 신의 뜻이기에 인간은 강제적으로 정해진 운명에 대해 반항할 수 없고 수동적으로 수긍해야 한다. 정해진 운명 안에서 행복해 질 수 있는 방법은 자신에게 처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상황에 맞는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다. (가)의 로마시대의 노예들과 주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운명 안에서 행복을 추구할 것을 요구받는다. 자신들에게 정해진 노예와 주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로마 시대의 많은 지식인들은 주장한다. 다만 그 역할은 선을 목표로 수행되어야 한다.

제시문 (나)에서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 간의 관계는 '공평성'이다. 공평성은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여 동등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느낄 때 나타난다. 따라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개인이 불공정하다고 느끼게 된다면 개인의 행복감은 저하된다. 개인과 타인의 행복은 이러한 면에서 상호의존적이다. '공평성'은 사회적 역할이 부여되기 이전 한 인간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행복 추구에 있어서는 인간은 동등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가 부여된 규범이 강제적으로 자신의 행복을 침해한다면 그 규범에 맞서 도전하고 타파하기 위해 노력하는 능동적 행동이 가능하다. (나)에서 아내는 행복하지 않다. 남편과 자신을 비교했을 때 불공평함을 느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내는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남편이 요구한 인륜, 예의, 염치 같은 사회적 규범에 맞서 행복을 쟁취하고자 한다.

제시문 (다)에서 개인이 행복과 타인의 행복 간의 관계는 '공동선'이다. 공동선은 같이 추구해야 할 덕을 의미한다. 인간을 개인적 존재가 아닌 공동체적 존재, 상호의존적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 때, 공동체의 행복은 곧 개인의 행복이다. 공동의 행복이라는 사회적 가치가 부여 되어 강제성을 띄지만 사람들은 이를 수긍해야 한다. (다)에서의 공리는 공동체의 이익이 개인의 이익과 일치한다고 본다. 따라서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공동체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

[평가]

이 답안은 부족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지를 자신의 언어로 참신하게 풀어낸 점이 돋보인다고 볼 수 있다.

제시문 (가)의 해석을 위해 답안 작성자는 '운명'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했다.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 사이에 별다른 관계가 없음을 올바르게 지적하면서, 정해진 운명 안에서 행복해 질 수 있는 방법은 자신에게 처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상황에 맞는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라는 논지를 정확히 파악했다. 하지만 운명에 의한 것이 아닌 사회제도나 규범에 의한 행복과 불행에 대한 논의로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제시문 (나)와 관련해서는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 간의 관계를 '공평성'이라는 적절한 단어로 풀어냈다. 이는 개인들의 행복도가 불평등하게 차이나는 것의 불합리함을 역설한 본문의 논지를 생각할 때 적절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사회적 가치가 부여된 규범이 강제적으로 자신의 행복을 침해한다면 그 규범에 맞서 도전하고 타파하기 위해 노력하는 능동적 행동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적절히 기술했다.

제시문 (다)의 경우, 답안 작성자는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 간의 관계를 '공동선'이라는 단어로 풀어낸다. 같이 추구해야 할 덕을 의미하는 공동선을 통해 개인과 공동체를 상호의존적 존재로 인식한다. 공동체의 이익이 개인의 이익과 일치한다고 보면서도 공동의 행복이라는 사회적 가치가 부여되어 강제성을 띠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를 수긍해야 한다고 지적함으로써 자신들의 행복추구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개인의 행복이 다수의 타인들의 행복을 위해 유보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본문의 논지를 어느 정도 파악해냈다고 본다.

아쉬운 점은 제시문들 간의 비교 분석이 없다는 점이다. 제시문 (가)와 (나)를 통해, 기존 사회제도에 순응함으로써 행복을 추구하려는 자세와 주어진 제도를 거부하면서까지 자신의 행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려는 자세를 대비시킨다든지, 제시문 (나)의 주인공 여성이 겪는 고통이 다른 가족 구성원들 전체의 행복을 증진시킨다면, 제시문 (다)의 공리의 원리에 따라 합리화 될 수 있음을 답안에서 더 논의했다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답안사례 2]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 간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볼 때 (가), (나), (다) 각각의 논지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먼저 (가)는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이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나)와 (다)의 입장과 달리, 개인과 타인의 행복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취한다. (가)에 따르면, 로마 사회는 노예 제도에 의한 개인의 불행을 사회적 문제가 아닌 운명적인 불행이라고 보았다. 타고난 운명은 타인에 의해 바뀌지 않는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였고, 여기에서 비롯되는 행복의 정도 역시 타인과 무관했다. 운명에 따라 노예가 되어 겪는 불행은, 주인이 되어 겪는 행복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취급받았던 것이다.

반면에 (나)와 (다)에서는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이 무관하지 않다는 입장을 취한다. 그런데 (나)와

(다)는 개인과 타인 각각의 행복이 서로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지향해야 하는 목표가 다르다. (나)에서 남편은 자신의 뜻과 행복을 위해 아내의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대해 아내는 모든 사람에게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음을 주장한다. 아내의 말에 따르면,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이 상충할 때는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함께 조금씩 행복해지는 길을 지향해야하고, 한 개인만이 절대적으로 불행한 길은 지양해야 한다.

반면에 (다)에서는 공리의 원리에 따라 개인과 공동체, 즉 개인과 타인은 전체 행복의 합이 증진되는 결과를 지향해야 한다는 논지를 펼친다. 공리의 원리는 어떤 행위가 당사자의 행복을 증진시키느냐 감소시키느냐에 따라 그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시행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당사자란 개인과 타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개인의 행복을 위한 선택이 타인의 행복과 관련성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나)와 공통된다. 그러나 (나)와 달리 (다)에서는 개인과 타인의 행복의 총합을 중요시한다. (다)에 따르면 한 개인의 불행의 정도가 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평가]

이 답안은 각 제시문의 핵심을 대체로 잘 파악하였다. 또한 많은 답안들이 각각의 제시문에 대한 분석을 단순 나열하는 식으로 서술한 것과 달리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 간의 관계'라는 관점을 견지하며 세 제시문을 일관성 있게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짜임새 있게 답안을 구성한 점이 돋보인다. 다만 제시문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분석이 부족하고, 다소 어색한 표현들이나, 중복되는 내용들이 가독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우선 제시문 (가)에 대한 분석에서 '개인과 타인의 행복은 무관'하고 개인의 행복이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운명에 따른 것'이었다는 해석은 적확하지만, 그리하여 정해진 역할에 충실히 따르는 것이 행복으로의 길로 여겨졌다는 설명이 부족하다. 제시문 (가)는 주어진 사회제도에 순응하여 각자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입장이라는 점에서 (나)와 대조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제시문 (나)는 이 답안이 짚어냈듯 서로의 행복이 상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이는 당사자 간의 상호 "양보와 타협"의 문제라기보다 (가)와 대비하여 주어진 사회체제와 규범의 불합리함에 대한 고발과 그에 대한 거부의 문제로 읽어내어야 한다. 제시문 (다)에 대해서는 공동체적 관점을 도입한 공리주의가 지니는 양면성을 잘 읽어냈다고 하겠다. 하지만 개개인의 행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의 관점과 공동체적 수준에서 개인들 행복의 총합을 중요시하는 (다)의 관점이 충돌할 수 있는 지점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3. 문제2번 답안사례 및 평가

[답안사례 1]

제시문 <라>의 국가군 B와 C를 비교하면, 국가군 C가 더 이상적인 국가이다. <라>의 도표 가로축은 행복도 평균을 나타낸다. 행복도 평균이 높은 국가일수록 국민들의 행복도의 총합이 크다. 도표의 세로축은 행복도 점수의 표준편차를 나타낸다. 표준편차가 큰 국가는 국민간의 행복도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국가군 B와 C를 비교하면 국가군 B의 국민 행복도의 총합이 국가군 C보다 크고, 국가군 C가 B보다 국민 간 행복도의 차이가 더 작다.

제시문 <다>는 행복도의 총합이 커야 이상적인 국가이므로 국가군 B가 이상적인 국가라고 판단할 것이다. 그러나 <다>의 기준인 공리주의 원리에 따르면 문제점이 생긴다. 행복도의 총합만을 고려하면 표준편차가 큰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 각 개인이 가질 행복도의 마지노선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 인류는 행복할 권리를 존중 받으므로, 이 마지노선은 국민이 최소한으로 가질 행복도에 대한 권리이다. 그런데 공리주의 원리는 한 개인이 아무리 불행하더라도 다른 어떤 개인의 행복도가 커서 행복도의 총합이 크다면 이것을 옳다고 본다. 제시문 <다>의 공리주의 원리는 국민의 행복할 권리

보다 총합에만 주목하므로 이상적 국가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이상적 국가는 국민의 행복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제시문 <나>는 각 개인의 행복을 별개로 여기며 중요시한다. <나>에 근거하면 국가군 C가 더 이상적이다. 국가군 C는 각 개인들의 행복을 모두 보장한다. 공리주의 원리에 따른 국가군 B는 도태되거나 낙오된 국민의 낮은 행복도를 무시하지만, C는 모든 국민의 행복을 보장한다. 국가군 B를 지지하는 입장은 국가가 개인 스스로 행복해질 권리를 보장해야 함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B를 옳다고 여길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역할이 그렇게 축소되면 낙오되는 개인이 생기기 마련이다. 행복도가 높은 개인은 그 국가의 제도와 잘 맞고, 그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인이 그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에 맞지 않아 낙오되는 것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다. 그렇기에 국가는 그러한 낙오된 개인의 행복도 지킬 의무를 갖는다. 이를 고려해볼 때, 국가군 C가 더 이상적이다.

[평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답안을 간결하게 정리하여 전달하고 있는, 전반적으로 우수한 답안이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아쉽다. 우선, 이 답안 작성자는 제시문에 바탕을 두고 오로지 논리에 의해서만 본인의 의견을 주장하고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신념이나 규범에 기대어 결론을 짓기도 한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문단의 “제시문 (다)의 공리주의 원리는 국민의 행복할 권리보다 총합에만 주목하므로 이상적 국가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주장은 그 논리적 근거가 희박하다.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 심해져서, “그러나 개인이 그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에 맞지 않아 낙오되는 것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다. 그렇기에 국가는 그러한 낙오된 개인의 행복도 지킬 의무도 갖는다.”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주장들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 이러한 주장들이 제시문에서 드러난 논리에 근거하지 않고 답안 작성자 본인의 평소 신념이나 태도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아쉽다. 답안은 따로 문제에서 요구하지 않는 이상, 제시문의 논리들만을 근거로 작성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문제 2]는 어느 국가군이 더 이상적이라고 여겨지는지를 제시문 (나)와 (다) 각각의 입장에서 답하라는 것이지만 본인의 의견을 묻지는 않았음을 염두에 두어야겠다.

두 번째 문제점은 논의가 간결한 정리 수준에 그치고 말아, 좀 더 입체적이고 깊이 있는 논의가 부족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제시문 (다)에 대한 직접적인 답안은 단순히 “제시문 (다)는 행복도의 총합이 커야 이상적인 국가이므로 국가군 B가 이상적인 국가라고 판단할 것이다”라고 평한 것이 전부이며 나머지 논의는 제시문 (다)의 주장에 대한 본인의 평가에 할애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제시문 (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것이다. 제시문 (다)가 행복도의 총합이 더 큰 쪽을 선호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수를 위한 소수의 강제적인 희생을 강조하거나 인정하는 주장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단지 제시문 (다)는 공리의 원리에 부합하는 개인의 행위를 도덕적으로 옳다고 판단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국가군 B의 상대적으로 높은 행복도 총합이 만약에 제시문 (나)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갈등상황에서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제시문 (다)도 무조건 국가군 B를 C보다 더 이상적으로 평가하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다른 조건들이 같다면 국가군 B를 더 이상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제시문 (나)에 대한 논의도 성급한 결론을 짓고 있으며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국가군 C가 (국가군 B보다) 상대적으로 행복도의 편차가 적은 것은 사실이나 “국가군 C는 모든 각 개인의 행복을 보장한다.”라거나 “국가 역할이 그렇게 축소되면 낙오되는 개인이 생기기 마련이다.” 등의 주장은 문제에서 제공한 제시문만으로는 그 근거를 가지기 힘든, 성급한 주장들이다. 국가군 B보다는 C에 속해있는 국가들이 (경제체제나 사회보장제도등을 통하여) 개인들 간의 행복도의 불평등을 줄인 것으로 추론할 수 있으며, 개인의 행복들 간에 생길 수 있는 긴장이나 갈등관계, 불평등에 관심을 가지는 제시문 (나)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국가군 C가 더 이상적으로 판단될 수도 있다.

[답안사례 2]

제시문 (나)는 개인 간의 어느 정도 행복도의 차이는 인정하지만, 한 개인이 지나치게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각 개인들이 서로 비슷한 행복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이상적이라고 본다. 어떤 사람은 평균보다 월등하게 행복한 데 비해서, 다른 사람은 평균보다 현저하게 불행한 사회는 개인과 타인의 행복도 차이가 조절되지 못한, 한쪽에게 불리한 이상적이지 않은 사회라고 보는 것이다. 또한 사람들 간의 행복도 차이가 심하다면 이는 행복도가 낮은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주면서 앞으로 더 심한 행복도 차이로 나아갈 가능성도 있다고 여긴다.

제시문 (라)에서 국가군 B는 전체적인 국민의 행복도 평균은 높을지라도, 표준편차가 큰것으로 보아 사람들 간의 행복도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국가군 C는 국가군 B보다 행복도의 평균은 낮지만, 표준편차가 작은 것으로 보아 사람들이 서로 비슷한 수준의 행복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제시문 (나)의 입장에서 볼 때, 표준편차가 작은 국가 C가 더 이상적이라고 여겨진다.

반면에 제시문 (다)는 개인 간의 행복도 차이보다는 전체적인 공동체의 행복도의 총합을 더 고려하는 입장이다. 각 개인들이 가지는 행복도의 차이와 상관없이, 공동체의 행복도의 총합을 최대화 시킨다면, 공동체는 결국 개인들의 합이기 때문에 개인의 행복도 보장된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개인 간의 행복도 차이가 크더라도, 그러한 개인 간의 차이가 합해져 공동체에게 손해를 가져오는 수준이 아니라면 충분히 용인할 수 있다고 여긴다.

따라서 이러한 제시문 (다)의 입장에서 볼 때, 국가군 C는 개인 간의 차이가 적더라도, 국민들의 행복도의 평균이 낮은 것으로 보아 공동체의 행복도의 총합이 작다고 볼 수 있기에 이상적이지 못하다. 반면, 국가군 B는 개인 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 차이가 국가군 C에 비해서 극심한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용인할 수 있다. 그리고 국민들의 행복도 평균이 국가군 C보다 높기 때문에 공동체의 행복도의 총합이 크다고 보므로, 국가군 B를 더 이상적으로 여길 것이다.

[평가]

전체적으로 출제의도를 잘 파악하고 요령 있게 답변을 서술한 점이 돋보이는 답안이다. 이 답안에는 특히 두 가지 장점이 있다. 먼저 각 지문의 내용을 최대한 정확하고 분석적으로 제시하고자 노력했다는 것이다. 제시문들을 이용해 도표를 읽어내는 식의 다면평가형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제시문들의 핵심을 잘 요약, 정리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다. 답안 작성자는 지나친 억측 없이 제시문 (나)와 (다)의 내용에서 뽑아낼 수 있는 여러 함의를 서술하였다. 제시문 (나)의 경우, 개인들 간 어느 정도의 행복도 차이는 인정하더라도 각 개인들의 행복도 수준이 비슷한 것이 더 이상적이라는 시각을 담고 있다. 또 (나)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 간 행복도의 불평등이 행복도가 낮은 사람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기존하는 행복도 차이를 더욱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논리도 적절하다. 제시문 (다)의 경우, 공동체의 행복도의 총합을 개인의 행복도에 비해 더욱 중요하게 고려하는 입장을 담고 있다. (다)의 시각에서 보자면, 공동체의 행복도 총합을 최대화시키는 것이 개인들의 행복 또한 보장하는 방법이며, 개인 간 행복도 차이가 크더라도 그러한 차이들의 합이 공동체의 행복에 큰 손상을 가져올 정도가 아니라면 감수할만하다는 논리도 설득력 있다. 이상의 명제들은 제시문들에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그 내용을 근거로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 답안의 또 다른 장점은 이렇게 제시문들에서 추출한 명제들을 바탕으로 도표에 대한 적절한 해석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개인 간 행복도 수준의 평등을 중시하는 제시문 (나)의 입장에서 표준편차가 작은 국가군 C가 이상적으로 여겨질 것이라는 해석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공동체 행복도 총합의 극대화를 지향하는 제시문 (다)의 입장에서 국가군 B를 이상적으로 볼 것이라는 해석 또한 그렇다. 답안 작성자는 또 B 국가군과 C 국가군 간의 표준편차의 차이에 유의하면서, 그 차이가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다)의 입장에서 충분히 용인할만한 수준일 것이라고 자기 주장의 세부근거까지 내놓는다. 이러한 꼼꼼한 해석은 답안의 설득력을 높이는 데 유용하다.